

나주 '0원 임대아파트' 35가구 확대

청년·신혼부부 부담 경감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
2023년 30가구→올해 135가구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도 호평



나주시가 일자리를 얻고 전입하는 취업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 0원 임대주택을 지난해까지 총 100호 공급하며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보증금 없는 취업청년 임대주택 단지·동호수 추첨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민선 8기 들어 역점 추진 중인 각종 청년 패키지 지원 정책을 강화해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조성을 앞당길 방침이다.

민선 8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보증금 없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일자리를 얻고 나주에 새 터전을 마련한 청년·신혼부부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이 주택은 나주시가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청년층의 주택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과 협약을 통해 2023년 30가구를 시작으로 2024년 70가구를 추가해 총 100가구를 공급했다. 올해는 35가구를 더 늘리기 위해 부영주택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 주거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들이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시에서 1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사회초년생 청년 259명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줬다.

가정을 꾸린 청년부부 367쌍에는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일시 지급해 신혼부부 가정에 실질적

인 도움을 줬다.

여기에 지난 2023년 전남 22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평생학습과 연계해 도입한 청년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나주에(愛) 배움바우처는 올해 5000명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한다.

나주에 배움바우처는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 도시에서도 각종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나주시가 1인당 15만원의 평생학습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올해 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에너지밸리 연계 전문인력 양성·청년창업 공간 지원', '미혼남녀 만남 주선', '청년창업농 경영 리더십 아카데미', '소박하지만 알찬 공공결혼

식', '청년정보·공감톡 플랫폼 운영' 등을 역점 추진한다.

이 중 '소박하지만 알찬 공공결혼식'은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절약한 예산 비용의 일부를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는 등 의미 있는 참된 예식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청년들에게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방 소멸 극복 전략의 최종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청년 세대가 나주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사랑상품권 카드형→캐시백 전환

3월부터 결제 후 환급 방식 전환...지류형은 10% 선 할인

담양군이 그동안 10% 선할인 판매해온 카드형 담양사랑상품권 혜택을 3월부터 결제 후 환급(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는 액면가로 충전한 뒤 결제할 때마다 10%가 적립되고, 그 적립금을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이전과 같이 10% 선 할인판매를 이어간다.

카드형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캐시백 적립 한도는 월 3만 원(충전액의 10%)이다. 적립된 금액은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착(chak) 앱에서 기본 설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3월1일 이전에 선할인으로 구매한 상품권 잔액은 소진 시까지 사용가능하며 소진 후 캐시백 방식이 적용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정책 변동에 발맞춰 담양사랑상품권 판매 방식을 전환하게 됐다"며 "변경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군 "군민에 직접 듣겠습니다"

김한중 군수 군민과의 대화...13일까지 11개 읍·면 방문

김한중 장성군수가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군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장성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동화면·황룡면(6일)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11개 읍·면 을 돌아볼 예정이다.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군민과의 대화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일정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7일-장성읍·서삼면', '8일-북하면(오후)', '9일-북이면·북일면', '10일-삼서면·삼계면', '13일-진원면·남면' 순이다.

김 군수는 농업시설과 건설 현장, 기업체 등도 방문해 소통 행정을 펼치고 중·중요도, 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는 읍·면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읍·면 발전토론회'를 새롭게 도입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8~16일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화순군이 8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진행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 계획 수립을 돕고, 2025년 핵심 농업정책과 지역주작목 신기술 등의 공유로 농정에 대한 이해감 조성 및 농업인의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 내용으로는 벼·고추·콩·공익직불제 4개 주요 과목과 농기계 안전사용 및 농정시책 등을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와 연계하여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기본형 공

익직불 교육을 포함하여 농업인의 교육 이수 편의성을 높이고, 기본직불금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 장소는 읍·면 복지관, 농업 회의실,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13개 읍·면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025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세부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내방 및 전화(379-5453)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함평군이 '2025년도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교육생을 오는 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함평군 학교면에 위치한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는 숙소와 교육장, 실습농장, 개별 텃밭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육생들은 이곳에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농업 이론 및 실습 교육, 농촌 적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70세 이하 도시민으로 최근 1년 이상 도시 지역에 거주한 이이며, 총 21세대(원룸형 12세대·단독형 9세대)를 선발한다.

교육과정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함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입교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

강진군이 경기 침체와 농산물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사진)

강진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강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에 따른 결정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강진군 내 본소 및 각 지역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579대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료의 50%이다.

본소에는 215대, 칠량분점 100대, 도암분점 128대, 작천분점 136대의 임대 농기계가 마련돼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관련 읍·면과 실·과·소에 협조



를 요청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감면 연장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군동본소, 칠량분점, 도암분점, 작천분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결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경철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